

광주·전남 ‘나들 가게’ 절반 폐업·취소

송갑석·이소영 의원 국감 자료
지난 10년간 1024억원 투입한
온라인 수·발주 지원 골목가게
전통시장 3곳 중 1곳은
모바일상품권 사용 못해
공동 유통시스템 구축 등 필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알리는 안내문.

대형 유통매장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소비가 확장되고 있지만 동네상권 경쟁력은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을 지원하는 ‘나들가게’는 광주·전남에서 지난 10년 간 누적 폐업을 50%를 넘겼고,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을 받는 전통시장 점포는 3분이 1이 채 되지 않았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0년여 동안 광주·전남 나들가게 폐업률은 51.6%로 집계됐다.

지역별 폐업률은 광주 65.5%·전남 38.7%로, 특히 광주는 평균 폐업률(48.2%)을 크게 웃돌며 전국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 기간 동안 광주 292개·전남 187개 등 479개가 폐업하거나 나들가게 신청을 취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나들가게’는 지난 2010년 첫 발을 내디뎠다.

실시간 영업정보 분석과 온라인 수발주가 가능한 100만원 상당 POS(전자식 금전 등록기) 시스템을 지원하고 안전시설 개선, 맞춤형 경영 상담 등을 제공한다.

사업 첫해 광주 92개·전남 122개가 개점하면서 지난해까지 광주 538개·전남 605개 등 1143개가 간판을 달아왔다.

하지만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투에 자생력을 잃어 가며 나들가게 폐업은 늘고 개점은 급속도로 줄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3곳, 전남서는 단 한 곳이 나들가게에 동참했고, 올 들어서는 개점 ‘0곳’을 기록했다.

올 6월 말 기준 나들가게를 유지하고 있는 슈퍼는 광주 246개·전남 418개 등 664개로, 개점한 1143개 중 5분의 3 수준(58.1%)만 남았다.

지난해 광주 11개·전남 21개 나들가게가 문을 닫았고, 올 상반기에도 광주 5개·전남 6개가 폐업했다.

나들가게를 그만둔 전국 4439개의 폐업 사유를 조사해보니 절반 가량인 2200개는 편의점으로 가

게를 전환했고, 업종 변경(24%·1070개), 완전 폐업(17%·773개), 신청 취소(9%·396개) 등 순이었다.

송갑석 의원은 “나들가게에 지난 10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1024억원에 달한다”며 “단순 시설 지원에서 벗어나 공동 유통시스템 구축, 온라인몰 제작 등 나들가게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강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도 효율적인 유통 구조를 갖추기에는 갈 길이 멀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점포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은 올해 8월 말 기준 광주 28.5%·전남 29.0%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전통시장 점포 10곳 중 7곳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광주 전통시장 점포 5647개 가운데 28.5%인 1607개, 전남은 8308개 중 29.0%인 2409개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맹을 맺었다.

전국 평균 가맹률 28.6%를 크게 웃돈 사·도는 세종 66.9%(519개 중 347개), 강원 48.6%(8134개 중 3950개), 울산 36.3%(4168개 중 1512개) 등이었다.

이소영 의원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도입 첫해인 지난 2019년 65억8000만원에서 올 8월 기준 2269억5000만원으로 무려 34배나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현금 대신 스마트폰 결제가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전통시장 가맹 유도과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송중욱(오른쪽 네 번째) 은행장이 ‘광주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최우수상 상금을 구내식당 직원들에게 전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패밀리데이’·‘PC-오프제’ 운영 광주은행 광주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최우수상

컴퓨터 끄기·금연 축하금 등 호평

‘패밀리데이’와 ‘PC-오프제’를 운영해온 광주은행이 ‘2021년 광주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광주지방고용정이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을 위해 실시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을 통해 받은 상금 100만원은 본점 구내식당 직원들에게 전해졌다.

광주은행은 근무시간 외에는 컴퓨터를 끄도록

하는 ‘PC-오프’와 패밀리데이 등을 진행하며 초과근로 줄이기에 힘썼다.

건강한 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119 캠페인’과 직원들이 체중을 줄이거나 금연에 성공하면 축하금을 주기도 했다.

송중욱 은행장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내부 직원들의 워라벨과 행복을 추구하는 일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 지역 경제 성장과 근로 복지를 견인하는 핵심적인 가치”라며 “직원이 일하기 좋은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광주은행만의 자랑스러운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일부터 인하

9억원 주택 810만원→450만원

이달 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는 것이 골자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의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의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사·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9월 수출 희비…전남 늘고 광주 줄고

전년비 각각 15% 감소 70% 증가

지난달 광주지역 수출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전년 대비 10% 이상 수출이 감소한 반면, 전남은 오히려 70% 넘게 증가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17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9월 지역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같은 기간보다 36.4% 증가한 48억8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는 14.6% 감소한 12억1300만 달러, 전남은

70.1% 증가한 36억6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두 달 연속 50억 달러를 넘었던 수출실적도 잠시 주춤한 셈이다. 광주지역 수출은 전달(12억600만 달러)과 비교해도 0.6% 느는 데 그쳤다.

광주·전남지역 수입은 57.7% 증가한 39억4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9억4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월 말까지 더한 누계 수출은 424억7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8% 증가했다. 수입은 317억1900만 달러로 45.2%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107억5400만 달러 흑자다. /박기용 기자 pboxer@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61% 수도권에 몰려

■ 로또복권 (제985회)							2등 보너스숫자
당첨번호							19
17	21	23	30	34	4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434,752,975					10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5,450,349					62
3	5개 숫자일치	1,572,229					2,581
4	4개 숫자일치	50,000					126,523
5	3개 숫자일치	5,000					2,123,240

주택 실수요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은 총 7만8896건(4조2549억원)이었다.

이중 서울 1만8994건(1조1058억원)과 경기 2만5645건(1조5147억원), 인천 3528건(1919억원) 등 수도권에만 4만8164건(2조8124억원)이 공급돼 전체 6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1886건(784억원)으로 2.4%, 전남은 1703건(825억원)으로 2.2%에 불과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채찬란
모노크롬

Splendor of
Monochrome

2021
전남국제
수목비엔날레

Jeonnam International
Sumuk Biennale 2021

2021.09.01_10.31

목포시 | 문화예술회관 일원
진도군 | 윤림산방 일원